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우울증에 관한 연구

Women's Family roles and vulnerability to Depress -Focus on the Korean Middle-aged Women-

김연옥*

Ⅰ. 서 론
1. 연구목적
2. 우울증;그 정의, 특성. 그리고 역학
Ⅱ. 기존 연구에 대한 비평적 분석
1. 정신 분석학적 접근
2. 인지-행동적 접근
3. 사회학적 접근;역할이론
Ⅲ. 적절한 이론적 틀
1. 심리-사회적 접근을 위한 인식틀;상황안의 사람
2. 여성성의 성립
Ⅳ. 조사방법론
1. 질적인식론;본 연구를 위한 그 적절성
2. 조사설계;자료출처, 자료수집, 자료분석
Ⅴ. 양적 분석의 결과
1. 여성 우울증 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2. 우울증을 유발시킨 주요 생활사건
Ⅵ. 우리나라에서의 여성성의 실천
1. "양처"와 남편의 외도
2. "효부"와 시어머니의 힘의 행사
3. "희생적인 어머니"
Ⅶ. 결 론
1. 사회사업실천을 위한 본 연구의 결론
2.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의 연구과제

*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Ⅰ. 서 론

1. 연구목적

이 논문의 목적은 여성이 가정내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여성의 우울증에의 취약성과의 관계를 심리-사회적 시각(psycho-social perspective)에 의해 밝히려는 데에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우울증에 대한 이론들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우울증 증상은 생리적인, 혹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설명되거나 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도 그 원인을 찾으려 시도되었고, 최근에는 social labeling의 이론도 대두되었다. 우울증은 이 중 어느 시각에 의해서도 완전히 설명될 수 없고, 또한, 충분한 규명을 위해서는 어느 한 시각도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이와같은 다양한 접근중에서 이 연구는 심리-사회적 시각에서 우울증을 이해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이 연구는 성에 근거해 구조화되어 있는 가부장적 사회질서가 여성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에서 시작되었다. 상술하면 사회적으로 성립된 이상적인 여성성의 조장이 여성의 우울증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전제이다.[1] 또한, 가부장적 원리에 근거하고 있는 사회는 여성들을 특정의 역할로 사회화 시킴으로서 이 이상적 여성성을 계발시킨다. 그 결과로, 고정화된 여성의 역할은 여성으로부터 그들 삶에 대한 기회와 통제력을 박탈하고 다른 사람들의

1) P. Bart, "Depression in middle-aged women," In V. Gornick & B. Moran(Eds.), Women in sexist society, Mentor Book, New York, 1970. / P. Chesler, Women and Madness, Camelot and Discuss Book, New York, 1972. / N. Gottlieb, Alternative social services for women,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80. / E. Howell, Women and Mental Health, Basic Books Inc., Publishers, New York, 1981. / H. Lewis, "Madness in women," In E. Howell & M. Bayed(eds.), Women and mental health, Basic books, Inc., Publishers, New York, 1981. / J. Matthews, Good and mad women; the historical construction of femininity in twentieth-century Australia, George Allen & Unwin, London, 1984. / J. Miller, Toward a new psychology of women, Beacon Press. Boston, 1988. / J. Miller & I. Mothner;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sexual inequality," In E. Howell & M. Bayes(eds.), Women and mental health, Basic books, Inc., Publishers, New York, 1981. / V. Frank & E. Rothblum(eds.), The stereotyping of women; its effects on mental health, Springer Publishing Company, New York, 1983. / A. Symonds, "Phobias after marriage; women's declaration of dependence," In E. Howell & M. Bayes(eds.), Women and mental health, Basic Books, Inc., Publishers, New York.

니드(need)에 순응케 함으로써 여성들이 정신적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을 크게 한다.

이러한 논거에서 출발한 이 논문은 우리나라 중년여성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첫째, 우리나라 사회의 이상적인 여성성은 무엇이며, 둘째, 이러한 여성성이 가족구조내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었는가, 그리고 셋째,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이 "바람직한 여성상"에 순응하여 왔으며, 이러한 그들의 노력은 정신건강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여성성의 구현과 그것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문제기가 시대착오로 느껴질런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는 교육, 취업, 법적 권리 등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왔고, 그 결과 이 부문에서의 괄목할만한 성장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이미 1970년대초, 여성들은 자유, 인권, 기회,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등을 남성과 동등하게 누리고 있다고 스스로 자인하였을 정도이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상의 변화가 남여관계(gender relations)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과 태도의 변화와 병행되었는가는 극히 의심스럽다.

사람의 태도나 의식면에서의 변화는 제도적 변화에 비해 상당히 더디게 일어나는 것은 흔히 보여지는 현상이다. 남녀관계 또한 예외가 아니다. 즉, 사회제도면에서의 여성지위의 변화와 무관하게, 남녀관계에 대한 개인들의 의식이나 행동양식은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이끄는 유교사상을 반영하는 도덕이나 윤리관의 지배에 따르고 있다.[3] 그 결과, 여성들의 삶이 이 유교사상에 의해 결정되고, 규정되어 온 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변함이 없었다. 19세기말,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개화기부터 끊임없이 지속되어온 여성교육 향상에 대한 강조와 열정에도 불구하고, 여성성에 대한 전통적인 이상은 한번도 의문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도 그것은 확인된다.

특히, 남녀관계에 대한 이러한 전통적인 의식과 태도는 가족구조내에서 더욱 강조, 보존되었다. 조 형은 우리나라 사회가 전반적으로 근대화로 지향, 발전되면서도, 유독 가족제도만은 전통적 틀안에서 유지, 기능하도록 유도되어 왔고, 그로인해, 남여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와 가치관은 가족구조안에서 그대로 답습, 지속되었다고 지적하였다.[4] 이러한 시점에서 볼때, 가정에서의 여

---

2) Kim, Hyon-Ja, "The changing role of women in Korea," Korea Journal, May, pp. 21-24.
3) 최재석, 한국가족연구, 민림서관, 서울, 1985 / 윤태림, "유교문화와 한국인의 정신," 한국철학, 크리스챤아가 삼성출판사, 서울, 1975.
4) 조 형, "현대사회와 가족," 미래에 대해 묻는다 Ⅷ, 한국미래학회, 서울, 1982.

성의 역할을 통해 구체화되는 여성성과 그것이 여성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밝혀보려는 이 연구는 의미있는 시도라고 하겠다. 이 연구에서 여성성이란 성에 근거한 정체감으로서 사회적으로 규정되며, 여성이 지니는 가치나 행하는 역할을 통해 구현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중년여성은 사회적, 심리적, 그리고, 신체적 관점을 모두 고려하여 정의되었다. 즉, 갱년기에 있거나, 그것을 목전에 둔, 혹은 방금 그 시기를 거쳐간 여성, 자녀들이 모두 성장하여 독립한 여성, 자신의 삶을 다시 돌이켜 보고 평가해보는 시점에 놓인 여성 모두를 의미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35세 이상 60세 이하의 여성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2. 우울증;그 정의, 특성, 그리고 역학

1) 정의

우울증은 그리 쉽게 분명히 정의되어지지 않는, 수수께끼같은 정서장애이다. 흔히 우울증이라고 얘기되어질때 적어도 세가지 경우중 하나를 의미한다. 즉, 첫째, 정상적인 정서상태에서 보여지는 약간의 저조한 심리상태, 둘째, 약물복용이나 다른 정신장애에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우울증상, 셋째, 우울증 자체가 일차적 증상이며 문제인 정서장애 등이다.[5] 이 세가지 분류기준자체가 매우 모호하긴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세번째의 경우, 즉, 일차적 정서장애로서의 우울증만을 다루기로 한다.

우울증의 증상은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그리고 행동적면에서 고루 나타난다.[6] 정서적으로는 슬픔, 외로움, 지루함, 유모어 감각의 상실, 냉담, 모든 것에 대한 흥미상실, 자신에 대한 실망, 자기혐오, 그리고 자기자신을 무용지물처럼 느끼는 등의 감정을 경험한다. 이러한 정서면의 부정적 느낌은 낮은 자기존중, 자신에 대한 무능력감, 무력감, 부적절감등의 부정적 인지구조와 병행한다. 우울증은 또한, 동기면의 부정적 변화를 수반하는데, 즉, 식욕상실, 수면장애, 성욕감퇴, 피곤 등의 증상을 보이고, 환상, 망상 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행동면에서는 활동력이 극감하고 느려진다. 한 사람의 우울증환자가 이 모든 증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일정 기간동안 몇개의 증상이 뚜렷할 때 우울증으로 진단된다.

---

5) L. Davison & J. Neal, Abnormal Psychology, Jone Weley & Sons, New York, 1986.

6) A. Beck & R. Greenberg, "Cognitive theory with depression women," In V. Franks & V. Burtle(eds.), Women in therapy, Brunner / Mazel Publishers, New York, 1974.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여성우울증환자발생을 이 세가지 모델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특히 여성학자들에 의해 활발히 되어 왔는데, 그 까닭은 이 이론들이 어느정도 사회적 조건이 여성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을 둘러싼 사회적 상황에 대한 어느정도의 이해에도 불구하고 이 접근들 역시 여성의 우울증을 이해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다.

Beck 모델의 핵심은 우울증의 원인을 부정적인 심리적 인지구조에서 찾는 것이다. 즉, 그는 본인과 그를 둘러싼 세계, 그리고 그의 미래 등 이 세가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사람일수록 우울증에의 취약성이 높다고 주장한다.[26] Seligman의 학습된 무능력모델에서는 본인의 노력이 삶에 있어서의 어떤 결과에 전혀 무관하게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계속 경험한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함으로써 우울증에 취약하게 된다고 주장한다.[27] 반면에, 행동주의심리학자들은 우울증을 긍정적 보상결여에 대한 부적응적인 행동적 반응이라고 이해한다.[28] 그 결과로 우울증환자들은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데, Lewinshon의 관찰에 따르면, 낮은 긍정적 보상은 무력증, 피로 등의 우울증 증상을 유발시키고 이러한 부정적 행동은 거꾸로 타인들로부터의 보상을 더욱 감소시키게 된다는 것이다.[29]

그러나 여성심리를 설명하는데에 가지는 이 이론들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관점에서 이 이론들 역시 여성의 우울증을 설명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무엇보다도 이들 접근은 성(gender)이라는 관점에서의 지식의 보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즉, 이들은 남여에게 서로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성(gender)이라는 조건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울증발생의 심리적 메카니즘에 대해서는 그럴듯한 설명을 제시하는데 비하여 우울증발생의 환경적 조건에 대해 도외시함으로써 여성우울증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의 핵심을 흐려놓는다. 이들 이론들은 자아심리학(ego psychology)에 초점을 둠으로써 어떻게 인간이 자신들의 세계를 형성하는가, 다시 말하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는 방법

26) A. Beck, Depression ;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Harper & Row, New York, 1967.

27) M. Seligman, "Depression and learned helplessness," In R. Friedman & M. Katz(eds), The psychology of depression ; contemporary theory and research, Winston ; Wiley ; Washington, D. C., 1974.

28) H. Ariskal & W. McKinney, "Overview of recent research in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2(3), pp. 285-305.

29) P. Lewinsohn, "A behavioral approach to depression," In R. Friedman & M. Kats(eds.), The psychology of depression ; contemporary theory and research, Winston ; Wiley, Washington D. C., 1974.

에 그 강조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로, 이 모델들은 우울증의 원인을 개인 자신으로부터 찾아 그들의 비논리적이고 건강하지 않은 자기판단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들 접근은 여성심리의 결정조건인 사회상황을 배제시키고 오히려 "희생자를 비난하는(blaming the victims)"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이점이 여성우울증을 이해하는데에 이들 이론들이 가지는 한계인 것이다. 왜냐하면 여성의 세계를 결정지우는 환경의 영향이 고려되지 않는한 여성우울증의 핵심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지-행동적 접근은 여성의 부정적인지구조, 무능력감, 불평등한 보상이나 강화를 낳게하는 사회적 근원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비역사적일 뿐만 아니라 성의 조건(gender factor)에 대해 둔감한 이론이다.

3. 사회학적 접근 ; 역할이론

여성우울증에 대한 사회학적인 추론은 개인이 사회에서 행하는 역할개념에 그 초점이 있다. 그러나 이 개념에 대한 가정들은 다양하며 크게 세가지 이론으로 정리된다.

첫째, Gove와 Tudor에 의해 정립된 사회역할이론(social role theory)은 여성이 가정에서 행하는 역할자체가 그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진다고 전제한다.[30] 따라서, 가정밖에서의 역할이, 예를 들어 노동시장에의 참여가 긍정적 보상의 소스(source)를 늘림으로써 그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간단히 주장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성(gender), 인종(race), 그리고 사회경제적 관점등에서 한계점을 벗어나지 못한다.

상술하면, 이 이론에 묵계된 전제, 즉, 심리적 보상을 제공하는 역할의 수가 정신건강과 관련이 된다는 것은 남여를 초월한 보편적 이론임을 의미하는데 이 이론이 남여의 세계가 다르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 이 이론은 남성의 경험설명에 더 적절할 것 같은 "노동시장의 참여"라는 개념으로 여성우울증을 설명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더욱이, 백인 중산층 여성과 달리 가정밖의 일에 만만치 않은 숫자가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층 소수인종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 이론은 설득력이 많이 감소된다.

둘째, 교환이론(exchange theory)은 단순히 노동시장에의 참여자체가 여성들

30) W. Gove & J. Tudor, "Adult sex roles and mental ill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4), pp. 812-835.

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31] 오히려 여성들의 정신건강은 여성들이 인지하는 그들 역할간의 부정적, 긍정적 보상의 균형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 또한 여성의 삶을 결정하는 사회 문화적, 그리고 역사적 상황을 논외로 하였다는 의미에서 비역사적이며 비사회적이다. 즉, 이 이론은 여성의 역할수행저변에 깔려 있는 사회내의 불평등한 성적 배열(sexual arrangement)을 간과하였다. 그 결과로 성(gender), 사회경제적 배경, 인종 등의 측면에서의 보편성을 그 특징으로 함으로써 여성우울증을 해부하는데 이 이론 또한 한계를 가진다.

셋째, Bart는 어머니나 아내로서의 여성의 역할 그 자체가 여성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보상의 소스라고 전제한다.[32] 따라서 이런 역할의 종식은 삶의 의미의 상실을 뜻하며, 결국 정신적 위기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녀의 이론에서 크게 두드러지는 것은 "blaming the victim"의 흔적이다. 이 이론은 여성들이 그들 자녀들이 결혼이나 사회적 입신에서 실패하는 경우 우울증을 보이게 되는데, 흔히 자녀들이 실패한 것은 실제로는 여성자신의 니드(need)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을 통하여 Bart는 그들 역할수행에 대한 자녀들로 부터의 보상의 부재로 좌절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보상의 부재로 우울증을 설명함으로써 Bart는 성을 초월한 그녀 이론의 보편성을 옹호한다.

이들 역할개념에 기초한 사회학적 접근은 공통적으로 이 사회가 공평히 기능하여 남녀 모두에게 공정하고 유사한 세계를 경험하게 한다는 묵계된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성에 근거해 불평등하게 기능하고 있고 그 결과로 여성들의 정신적 위기가 커진다는 입장에서는 이 접근이 여성심리를 파헤치는데 제한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Stacey와 Thorne은 역할개념이 사회구조보다는 개인의 측면에 치중하여 있고 여성의 역할과 남성의 그것이 상호 보완적이라고 전제하고 있다고 비평하였다.[33] 이들은 이와같은 역할 개념에 기초한 여성문제에 대한 기능론적 접근은 여성의 세계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역사적이며 정치적인 상황을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여성의 경험을 재고하고 재해석하는데 오히

31) R. Barnett & G. Baruch, "Role quality, multiple role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idlife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3), pp. 578-585.

32) Bart(1970).

33) J. Stacey & B. Thorne, "The missing feminist revolution in sociology," Social Problems, 32(4), pp. 301-316.

려 방해가 된다고 반박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학적 접근은 여성우울증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

Ⅲ. 적절한 이론적 틀

1. 심리—사회적 접근을 위한 인식틀;상황안의 사람

이 연구의 이론적 시각은 심리사회적이다. 여성의 우울증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연구는 기존의 이론적 접근들, 즉 심리적 접근과 사회적 접근을 종합하여 하나의 시각을 정립하였다. 이 시도를 위하여 사회사업의 전통적인 인식틀인 The person-in-situation은 의미있는 적절한 framework이라고 생각된다. 이 인식틀은 개인과 그를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즉, 개인은 반드시 그를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상호교환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전제함으로써 개인적 측면이나 사회적 측면 한쪽만에 편중된 기존 시각들의 단점을 보완하여 여성우울증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를 한다. 그 결과 person-in-situation의 틀에 기초한 심리—사회적 시각은 우울증을 이해하기 위하여 여성의 삶의 전체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게 한다. 이 접근은 여성의 심리, 그들의 역할,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상황 등의 세 측면의 상호작용에 그 촛점을 둠으로써 여성이 처하고 있는 사회상황과 이안에서 성립되는 여성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적절한 시각이다.

2. 여성성의 성립

1) 성에 의해 구조화된 사회와 여성성

사회는 여성성이라는 이상을 통하여 여성의 정체감을 형성시킨다. 여성성은 사회적으로 define되는 "여성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 여성을 인식, 판단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여성성은 사회적으로 규정되어온 전통적인 여성역할, 즉, 어머니나 아내의 역할을 통해 구현된다. 여성정체감의 주요 소스인 이 여성성은 모순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데, 그 까닭은, 정체감은 자아실현을 통한 인간적 성장과 전인격(whole personality)의 형성의 근간이 된다고 심리발달이론에서 흔히 얘기되어지는 것에 비하여 이 여성성의 성취는 여성 자신을 억제하거나 타인들에게의 예속을 통한 자기상실로써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여성성 본질자체가 정신건강의 위기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성성의 이와같은 모순성은 본질적으로 그것을 추구하고 완수하려는 여성들의 정신적 위기성을 크게한다. 이와같이 사회적으로 규정

되고 성립된 여성성은 결과적으로 여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그러므로, 사회적 상황과 연관시킨 여성성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여성의 정신건강을 설명하는 지름길이다.[34]

여성성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삶에 대해 통제력과 권위를 가진 개인이나 제도에 의해 그 내용이 채워지는 하나의 "비어있는 조개 empty shell"와 같다.[35] 그 중 가부장적사회는 불평등한 성적 배열을 그 특징으로 하며 그것을 지탱해주는 몇가지 전제는 여성성을 이해하는 열쇠이다. 첫째, 가부장적사회는 남성과 여성의 세계를 두개의 극으로 구조화시키고 이 "세계"는 서로 상이하다. 둘째, 이 사회는 남성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고 남녀의 관계는 위계적이고 불평등한 관계, 즉, 우월과 열등, 지배와 예속이라는 관계로 전형화하였다. 즉, 남성은 보편적 존재(a being universal)이며, 반면에 여성은 "others"로 간주된다.[36] 이와같이 하여 남성은 언제나 우월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여성을 지배하는 힘을 소유하게 된다.[37]

이러한 구조내에서 여성은 자신들의 삶에 대한 자율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것이 여성심리를 조건지운다. 이 점으로부터 여성의 정신적 위기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된다. 즉, 여성의 정신장애는 그들의 삶이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여성성을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결부시켜 해부함으로써 여성정신건강위기의 근원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2) 여성성의 실체 ; 타인을 위한 존재

여성성의 기본 특성은 "doing for others"이다.[38] 즉, 여성으로서 정체감의 핵심은 그들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 존재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지배적인 남성과 예속적인 여성으로 특징지워진 사회구조에 기인된 이러한 타인지향적인 여성심리는 여성으로하여금 하나의 고유한 존재로서 자신들의 욕구에 충실하고 그것을 계발하도록 장려되지 못하고 오히려 타인들의 니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사회화된다. 지배집단의 이러한 요구는 내재화 과정을 통하여 여성들에 의해 그들의 자연스런 본질로 받아 들여지게 된다. 그 결과 여성들은 "타인들의 욕구에 민감"하고 "타인을 위해 사는" 것을 여성특유의 성향

34) Matthews(1984).
35) Ibid.
36) S. Collins, "The personal is political," In C. Spretnak(ed. zO), The politics of women's spirituality, Anchor Press, New York, 1982.
37) Matthew(1984).
38) Miller(1988).

으로 계발시키게 되고 이러한 성향은 여성정체감의 기저를 이룬다.

3) 역할을 통한 여성성의 실천

이와같은 "타인의 니드에 민감"하고 "타인 지향적"인 여성 특질은 여성에게 부과된 역할을 통해 실체화된다.[39] 여성성을 추구하는 소위 "바람직한 여성"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되고 구체화된다. 즉, 자녀들과의 관계에서의 어머니, 남편과의 관계에서의 아내,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딸 등의 역할을 통해 여성성이 실천된다.

4) 여성성추구의 궁극적 결과; 빈 자아

정체감을 찾으려는 여성들의 노력의 결과는 "자아의 상실"이다. 즉, 여성성은 자아를 잃어버리는 지점에서 비로소 찾아지는 것이다. 의심할 것도 없이 자신을 억제하고 타인을 위해 존재하게 되는 여성심리형성은 여성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고, 그 결과로 여성들은 쉽게 정신장애의 희생자가 되는 것이다.[40]

더욱이, 그와 같은 여성성은 타인들의 삶에 대한 여성들의 의존성을 크게하고 남편이나 자녀들을 통한 간접적이고 대리적인 삶을 살게한다. 또한 여성성 그 자체가 가부장적 사회가 만들어 낸 하나의 성취불가능한 이상이기 때문에 언제나 여성성추구는 여성들에게 어쩔 수 없이 좌절감을 낳는다.[41] 요약하면, 여성성 자체가 (1) 자신을 억제하고 타인을 위해 존재하며, (2) 타인의 삶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3) 성취불가능하고, 언제나 추구의 과정에만 있는 하나의 사회적 이상 등의 특성으로 인해 그 본질로 부터 정신위기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Ⅳ. 조사 방법론

1. 질적 인식론; 본 연구를 위한 그 적절성

이 연구는 질적 인식론(qualitative paradigm)에 근거하여 시도되었다. 그 까닭은 그것의 지식에 대한 철학과 방법론이 이 연구의 관점, 즉, cross-cultural perspective와 feminism critique에 적절한 조사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여성성이 여성우울증을 이해하는 주요 열쇠이고, 따

39) B. Stevens, "The psychotherapist and women's liberation," Social work, 16(3), pp. 12-18.

40) Lewis(1981).

41) Matthews(1984).

라서 가부장적 사회구조에서 남성과 상이하게 경험되는 여성들의 현실과 세계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gender)은 하나의 변수로서가 아니라 이론화의 대상이어야 한다고 전제한다. 또한, 공통적인 각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에도 불구하고 여성 삶에 대한 그의 영향은 각 사회의 문화에 따라 상이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이 연구는 전통적인 조사인식론(research paradigm), 즉, positivism은 몇가지 근거에서 본 연구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첫째, positivism철학에 근거하여, 기존의 우울증 이론에서 추출한 가설과 변수간의 검증을 통한 연구는 여성우울증에 설득력있는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은 흔히 남성의 관점에 의해 왜곡된 기존의 관점을 유지시키거나 정당화시키는 구실을 할 뿐이다. 왜냐하면 이 논문의 문헌연구부분에서 분석했듯이 대부분의 기존 이론들이 단지 남성들의 시각만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개인이 놓여있는 상황을 완전 배제(context-independent)한 추상적인 변수간의 원인결과론적 연구의 저변에 가지고 있는 전제는 여성과 남성이 경험하는 세계가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부장적 사회의 특성을 고려할때, 이러한 변수들이 어느정도 여성들의 세계를 반영하고 그것을 밝힐 수 있는지 극히 의심스럽다. 본 연구는 남여의 세계를 동시에 설명하는 보편적 지식은 그러한 지식을 생산해 내는 사회가 성적으로 불평등구조를 이루고 있는 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가 많이 의존하고 있고, 그로부터 변수들을 추출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론들이 그 정립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세계와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지식생산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시각과 편견이 작용하고 있다고 전제한다.

둘째, 기존 이론들 대부분이 서구 문화를 배경으로 정립되었으며, 특히 서구의 중산층, 백인여성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어 우리나라 여성문제에 그대로 적용되기에 무리가 있다. 전 사회에 가부장적 문화의 공통성이 있지만, 그것이 여성들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각 사회에 따라 상이하다. 즉, 이상적인 여성상 또한 사회에 따라 다르며, Matthew는 여성성은 역사적이며 사회적이라고 규정하였다.[42] 이 관점에서도, 문화와 사회의 상이성을 배제한 보편, 객관적인 지식과 이론은 우리나라 여성문제연구에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와 성(gender)의 관점에서 볼때, 서구 사회를 배경으로한 이론과 개념들을 그대로 적용시키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상황속에서 문제를 이해함이 그 해결의 선결조

42) Ibid.

건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인간이 놓여진 사회적 상황 social context을 배제한 추상적이고 법칙 law like과 같은 지식은 본 논문이 사회사업실천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서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43] 왜냐하면, 사회사업서비스는 client와 social worker, 그외 여러사람이 관여하는 상황속에서 이루어지며, 셀 수 없는 많은 변수들이 무수히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몇개의 변수로 간단히 이해되어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도 우리는 문제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논거에서 이 연구는 여성의 현실에 근거한 우울증의 발견과 재해석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우울증 환자가, 처해진 가족, 사회, 역사, 그리고 문화적 상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하는 생활사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며, 자신들의 삶에 대해 얘기하는 여성본인의 생생한 목소리, 즉, 그들 삶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기초해 우울증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의 경험이나 사건의 의미를 밝히는 과정으로서의 해석학적 접근은[44] 그 전제로부터 본 연구에 적절한 방법론이다. 첫째, 이 방법론은 인간 존재는 그물처럼 얽힌 의미(the web of meaning)로 구성되며, 그것은 절대로 미리 정의되는 변수들로 단순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한다.[45] 그러므로, 이 방법론은 역사, 사회, 문화에 대한 깊은 고려를 통하여 검증(verification)보다는 발견(discovery)의 논리를 가진다. 둘째, 인간의 삶이란 열려진 체계(open system)가 그 특징으로, 외부로부터의 영향과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오히려 언제나 문화속에 존재하며, 이 안에서 인간은 본인의 세계를 창조해가는 끊임없는 과정에 놓여있음으로 인간이 놓여진 상황을 배제한 진공상태에서 연구되어질 수 없다고 전제한다.[46]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의 우울증환자를 그가 처해진 사회, 역사, 그리고 문화의 상황에서 조명하려는 본 연구에 인간을 총체적으로 파악, 이해하려는 해석학적 접근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

43) D. Smith, "The limits of positivism in social work research,"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17, pp. 401-416.

44) N. Denzin, Interpretive interactionism, SAGE publication, Newbury Park, 1989.

45) Ibid.

46) P. Rabinow & W. Sullivan(ed), Interpretive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1979.

2. 조사 설계; 자료출처, 자료수집, 자료분석

본 연구는 2차 자료분석에 의해 행하여 졌다. 즉,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4개의 종합병원에서 35세 이상 60세 이하의 주부환자로 1980년과 1988년 사이에 입원하여 우울증으로 진단되어진 합계 141명의 여성의 병원 기록부를 수집하였다. 병원 기록부로부터 환자의 병력, 진단, 약물치료, 가족관계, 성장과정, 교육배경, 혼전 가족관계와 사회경제적 배경, 결혼후의 생활, 특히 남편과의 관계, 시댁가족과의 관계 등 환자의 생활사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질적, 양적 분석방법을 병용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질적인식론(qualitative paradigm)에 의존하였다. 자료의 양적분석에 의해 질적분석을 위한 주요 테마를 추출하였고, 그 주제를 중심으로, 141개의 병원기록에서 선정된 39개의 사례의 여성들이 어떻게, 왜 우울증을 발병시키게 되었나를 그들의 생활사를 기초해 해석학적 접근(interpretive approach)으로 분석하였다.

V. 양적 분석의 결과

양적 분석의 주요 목적은 여성우울증환자들이 경험한 결정적인 생활사건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보충적 자료로서 그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밝혀보았다.

1. 여성 우울증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앞서 밝힌 바대로 본 연구의 대상의 연령분포는 35세 이상 60세 이하이다. 이들 대부분이(85.7%) 남편이 있었고, 11.4%는 미망인, 그리고 이혼이나 별거상태에 있는 환자가 2.9%로 나타났다. 46.5%가 국민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졌고 14.3%가 중·고등학교학력, 38.4%가 대학교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대상자의 다수가(78.6%) 전업주부였고 17.8%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9.7%가 중산층이나 상류층의 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40.3%가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이었다. 평균 자녀수는 3.3명이었으며 자녀들 대부분이 중등학교이상의 연령을 보이고 있어 어느정도는 자녀양육의 부담에서는 벗어난 상태로 나타났다. 남편들의 학력과 직업을 보면 그들 중 반이상이 중류, 상류에 속하는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중 51.1%가 학사나 그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었다.

2. 우울증을 유발시킨 주요 생활사건

여성우울증환자들이 경험한 생활사건들을 알아보기위해서 본 연구자는 분석대상인 병원기록부를 상세히 읽고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생활사건들이 주로 발생되는 7개의 생활영역, 즉,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시집가족과의 관계, 가사일, 직업, 건강, 기타 주변인들과의 관계 등을 추출할 수 있었다. 이들 영역에서 환자들이 경험하는 생활사건은 총 384건으로 밝혀졌으며 그 중 1/3이상(35.7%)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사건중 23.7%가 시집식구와의 관계에서 17.4%가 아동과의 관계에서 경험되는 사건들이었다. 나머지 생활영역에서 환자들이 경험한 사건수는 질적분석에서 제외될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한 숫자로 나타났다.

제일 빈번하게 여성이 생활사건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난 위의 세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사건들이 발생하는가를 새로이 분석해본 결과 남편의 외도, 고부간의 갈등, 그리고 학교와 사회에서의 자녀들의 성취 등이 제일 빈도가 높은 생활사건들로 나타났고 이 세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다음 장에서 해석학적 사례분석을 하였다.

Ⅵ. 우리나라에서의 여성성의 실천

내 남편이 나와 결혼하기전에 다른 여자와 관계가 있었고 그 사이에 아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나는 꿈에서조차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런 믿을 수 없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결혼생활을 지탱해나갈 수 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혼이란 생각조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면 모든 상황이 나아지리라고 믿었고, 실제로 다른 여인이 난 아이들을 키우는데 나의 온 정성을 기울였다.

그러나, 잘 살아보려는 나의 노력은 시어머니의 간섭과 극성으로 인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아뭏든 시어머니는 한순간도 나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나의 살림살이태도조차 언제나 불평이었고 심지어 음식솜씨도 늘 타박하였다. 그러면서도 내가 늘 바쁘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도와 줄 생각도 안하였다.

생활을 더 비참하게 한 것은 가난이었다. 남편은 말단 공무원이었고 가난한 가계부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남편은 가정살림이 어떻게 돌아 가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고 빠듯한 월급으로 살아가는 것은 온전히 내 책임이었고

그것이 이제는 신물이 나고 지겹기만 하다.

더 기가 막힌것은 이러한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이다. 처음에 이 사실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그가 온전한 정신인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한 귀로 흘려듣고 말았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고 나는 거의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남편의 외도와 시어머니의 구박에도 아이들은 내게 희망이었고 그 아이들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 먹을것, 입을것도 아꼈고 그덕분에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낼 수가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에 대한 나의 꿈은 그들이 결혼하면서부터 깨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내 아들은 자기 아내에게 꼼짝을 못하고 그 아이말만 듣고 나는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개들은 분가해서 살기 원했고 그후에는 며느리는 내집에 오는것조차 싫어하였다. 내가 특별히 며느리에게 나쁘게 하는 것도 없고 내 딴에는 잘할려고 하는데도 그아이는 아예 시집식구들과 상대하는 것조차 싫어하는것 같았다. 며느리는 내게 잘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고 나를 전적으로 무시하였다.그 아이는 나와는 전혀 다른것 같았다. 나로서는 시댁식구를 공경하는 것을 마땅히 내가 할 의무로 여기고 살아왔는데 말이다.

이 이야기는 딸 하나와 아들 하나를 둔 60세의 한 환자가 살아온 자신의 생에 대해 토로한 것이다. 이 짤막한 한 여성의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들이 겪어온, 그리고 겪어가고 있는 삶의 한 형태를 보여 준다. 즉, 여성들이 가족관계속에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그리고 시어머니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러한 삶에 어떻게 그들이 순응하여 왔는지를,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삶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가를 얘기해주고 있다. 위의 사례속의 여성은 우리나라여성의 이상적인 역할은 무엇이며, 그것이 일상의 생활을 통해 어떻게 실천되었으며, 그것이 여성자신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를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 장에서는 가족구조안에서의 여성의 경험을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역사적 상황에서 해석을 시도하였다. 가정내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과 관련시켜 그들의 정신건강을 규명해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가족구조와 그것을 지지해주는 문화와 윤리체계에 대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가부장적구조와 문화를 따로 분리해서 논의하기 보다는 여성들이 경험한 생활사로부터 출발해서 그들의 삶속에서 구체화되고 실천되는 부권문화와 가치의 흔적을 추적해보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를 통하여

여성들의 삶을 충분히 반영하여 그들의 시각으로부터 가부장적 가족구조의 문화와 영향을 밝히려고 한다.

병원기록부의 양적 분석에서 여성의 우울증 환자들에게 제일 빈번히 발생되었던 주요생활사건으로 나타난 남편의 외도, 고부간의 갈등, 그리고 자녀의 문제 등의 그 생활사건들 자체가 단순하게 여성들에게 우울증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 생활사건들을 중심으로 39개 사례환자들의 생활사를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문화와 역사, 사회적 상황에 비추어 분석해 본 결과 오히려 여성의 우울증은 가부장적 가족제도, 그 안에서의 기대되어지는 역할과 태도를 통한 "이상적 여성상(the ideals of the good woman)"등의 상호작용을 통한 여성성의 추구의 결과로 이해된다. 즉, 우리나라 여성의 우울증은 구체적인 생활사건들에 직면한 여성들이 가부장적 가족제도내에서 "바람직한 여성"의 역할을 행하려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가부장적 문화는 양처, 효성스런 며느리, 현명하고 자기희생적인 어머니, 그리고 엄격한 시어머니 등을 가정내에서의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여겨왔으며 우리나라 여성성의 핵심을 이룬다. 가부장적 가족의 존속, 그를 위한 남아선호, 가족주의에 부속된 약한 부부유대, 여성의 정절, 이혼과 여성의 재혼에 대한 타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중적 성가치관, 강조된 부모에 대한 무조건의 복종과 효 등의 가치가 여성성을 구체화시켰으며, 그리고 이러한 이상적인 여성성은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존속시키는데에 기여를 하여왔다.

1. "양처"와 남편의 외도

현대사회에서의 남편의 외도는 가부장적 전통을 반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가부장적문화는 부부관계의 친밀한 유대감이나 애정보다는 가계를 지속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하였다.[47] 이렇게 소원하게 부부관계가 규정된 것은 이성간의 친밀한 관계가 가부장적 가계존속의 필수조건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48] 따라서 부부간의 성생활도 자손 존속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았고 대신에 남성의 성을 위해서는 축첩이나 기생이라는 사회적 장치가 있었다.[49] 반면에 여성의 성은 철저히 억제되어 왔

47) 최재석, (1985).

48) Choi, Jae-Sok, "Process of change in Korean Family life," Korea Journal, October, 1963, pp. 10-15.

49) Ibid.

는데, 이는 남편에 예속, 복종적인 아내의 지위, 이혼이나 재혼에 대한 타부, 그리고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여성의 정절 등의 가치에 의해 지지, 강화되었다.[50]

병원기록부의 분석에 따르면 환자들 남편의 외도도 이러한 전통적인 가부장적 문화와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첩제도는 사라졌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던 가치는 그대로 남아 남편의 외도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환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외도를 한 남편이 흔히 "그것을 눈감아 주는 것이 아내의 미덕아니냐"고 오히려 환자를 나무라거나 폭행을 하기도 하여 남성들 자신들이 의식, 무의식적으로 부권중심의 가치를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 자신들도 그러한 가치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채 결혼생활유지를 우선의 것으로하여 남편들의 외도를 감내하고 있었다. 어떤 환자들의 경우에는 그들 남편들의 외도를 묵인하거나 용서하려고 "교회를 나가는"등의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 내면에는 "배반을 당했다" "이용만 당했다"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등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이 "의무감으로 살아왔다"고 말하여 분열된 심적 갈등을 보였다.

2. "효부"와 시어머니의 힘의 행사

서구의 경우에 비해 우리나라 여성우울증환자의 특이한 점은 고부관계가 여성우울증환자가 빈번히 경험하는 생활사건으로 드러난 것이다. 결혼이 가계존속을 목적으로하는 만큼 그것은 두사람의 대등한 만남이 아니라 여성을 남편가계의 가부장적 질서속으로 통합해 들이는 사회적 장치로 작용하였다. 새로이 편입되어 들어온 가계원으로서, 여성은 남편가계의 위계질서속에 최하위 지위에 놓이게 되고 그녀는 시댁가족들에게 봉사, 예우, 복종을 다하게 된다. 효성심은 며느리로서의 여성성의 핵심적 가치이다. 자신을 완전히 억제하며 무조건의 효성스런 며느리의 역할은 여성들에게 심리적 갈등을 가져오게 된다. 오랜 세월 병든 시어머니를 간병한 한 환자는 "시어머니 방에만 들어가면 살썩는 냄새때문에 괴로웠고 당장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도리로 그럴 수는 없었고 그럴수록 시어머니가 밉기만 했다. 돌아가시고 나서도 미운 마음이 가시지 않고 49제조차 내몰고 싶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강한 죄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되는데… 인간의 도리로 이래서는 안되는데 왜 그러는지 나도 모르겠다"는 갈등을 표현하였다.

며느리와 아내의 역할을 다하고 나이가 들면 남편의 가계로부터 어느정도의

---

50) 최재석, (1985, 1963), / 최신덕, 결혼과 가족, 이화여대 출판부, 1978.

지위와 권위가 부여되지만, 이러한 지위와 권한행사는 집안에로만 제한된 것으로서 여성의 영역, 즉, 가사일, 아이들 교육 등에 한정되며 여성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때가 되면 또 다른 내용의 "여성성"이 규정되고 요구되는데, 이것은 그녀의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구체화된다. 상술하면,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여성성"을 판단하고 감독하는데 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집으로 새로이 편입해 들어온 며느리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게끔 지도, 감독하는 역할이 그의 새로운 의무로 기대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 시어머니는 남편가계의 존속에 기여를 하게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어머니, 며느리 양자 모두 각자에게 부여된 여성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데, 이때 남편가계를 위한 존재로서는 같은 입장이지만 서로 다른 지위와 역할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갈등이 모두에게 정신적 손상을 입히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조하면, 고부갈등은 우리나라 가부장제도의 필연적인 결과인 것이다.[51]

3. "희생적인 어머니"

모성은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여성성의 또 다른 dimension이다. 자녀를 훌륭히 키워내는 "현명한 어머니"는 진정한 모성애의 정수로 여겨왔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 역시 가부장제의 지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계후계자로 아들을 생산하고, 조상을 떠받들고, 그리고 가계를 번영시키는 여성의 의무는 아들을 사회적으로 입신하도록 키워 가문의 명예가 되도록 하는 것이 그 완수의 지름길이었다. 그리하여 가부장적 가계의 명예스런 존속을 위해 아들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이러한 전통적 어머니로서의 태도와 역할수행은 현대에 와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환자들의 경우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니드와 욕구를 희생하면서까지 자식들이 학업과 사회적 성취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많은 환자들이 "자식이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자식들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에 그들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같은 실망과 충격을 받고 "나는 헛살아왔다"고 말한다. 즉, 그들에게 요구된 여성성의 추구는 실패되고, 이것이 그들의 우울증에의 취약성을 크게 만드는 것이다.

---

51) 이광규, 한국가족의 심리문제, 서울, 일지사, 1981.

Ⅶ. 결　　론

1. 사회사업실천을 위한 본연구의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년여성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데 문화와 성(gender)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있는 결론을 얻었다.

첫째로, 사회, 문화, 그리고 역사의 맥락안에서 여성우울증 환자의 현실을 밝히기 위해 the person-in-situation의 paradigm에 근거한 해석학적 분석은 우울증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주었다. 즉, 종래의 심리병리학적 관점이나 역기능적인 여성의 가정내 역할로 부터 그 원인을 규명하려는 제한된 시각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즉, 여성우울증을 사회의 불평등한 성구조와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가족관계의 역동적 상호작용의 시각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다.

둘째로, 이 연구의 결과는 사회사업분야에서 흔히 보여지는 두 가지 패턴의 고정적 성적 편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한다. 하나는 전통적 성역할 분담의 강조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의 기본 구조인 불평등한 남녀관계(gender relations)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하에서 사회사업서비스는 부지불식간에 사회의 기존 남녀관계를 지지 강화하는 기능을 하여왔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치료자들은 성에 근거한 경직된 역할분담이 여성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는 애정이 부재하고 불평등한 힘의 관계로 규정된 부부관계가 여성의 "자기상실(de-selfing)"을 통한 적응을 불러온다는 것을 극명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발견은 흔히 가족치료모델에서 부부관계의 위계적관계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반면에 세대간의 관계에만 초점이 가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즉, 이들 모델에서는 남편과 아내는 부모라는 한 단위로 취급되어 마치 그 안에는 성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처럼 전제하고, 대신에 어머니-아동 간의 관계는 지나칠 만큼 강조되어서 그 결과 "bad-mothering" 혹은 "over-functioning mother"이 여성우울증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되었다.[52]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경향에 도전하며 부부간에 존재하는 불평등한 힘의 관계가 진단이나 치료에

52) F. Walsh & M. Scheinkman, "(fe)male : the hidden gender dimension in models of family therapy," In M. McGoldrick, C. Anderson, & W. Froma(eds.), Women in families ; a framework for family therapy, W. W. Norton & Company, Inc., New York, 1989.

고려되지 않는한 정신건강서비스분야에서 흔히 보여지는 "blaming the victim"의 경향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넷째, 여성의 자기상실을 통한 결혼생활에의 적응이 우울증유발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가족 외부에, 즉 가부장적 사회에 존재하는 남여간의 불균형한 힘의 관계에 대한 인식 또한 필요하다. 그리하여, 치료자들은 여성환자들에게 그들의 문제를 주변의 사회·문화등과 관련시켜 자신들의 상황을 인식하고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문화적, 사회적 상황안에서 여성우울증환자에 대한 이해의 시도는 서구의 연구에서는 없는 현상, 즉 고부간에 존재하는 불균형한 힘의 관계가 우울증유발에 빈번히 관여하고 있는, 다분히 우리나라 문화에서만 이해가 가능한 사실을 밝혀 내었다. 이 사실은 문화라는 요소가 효과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치료자들에 의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해 준다. 예를 들어 가족치료모델은 흔히 핵가족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이러한 치료모델이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될 때는 우리 가족구조와 문화에 맞게 수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치료자들이 여성환자들을 다룰 때 고려하기를 바라는 점을 본 연구가 제안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가 우리나라 사회가 규정한 여성성을 받아들인 여성들 모두가 우울증의 희생자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규정되고 제한되는 여성성에의 경직된 순응의 한 가능한 결과를 밝혀보려던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가족내 역할에 대한 전면 부정을 여성건강을 위한 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본 연구자 또한 성에 근거한 어느정도의 역할구분은 사회기능을 위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본 연구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삶의 선택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고 외부에 의해서 통제된다는 것이다. 즉, 그들의 삶이 "여성성"이라는 사회적 이상에 의해 가정을 중심으로 한정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사업 서비스는 여성들에게 자신들의 삶에 대한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확대시키는 데에 기여를 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의 연구과제

이 연구는 부분적으로는 자료의 특성으로 인해, 부분적으로는 분석방법에 의해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연구의 분석자료는 4개의 종합병원에서 수집한 병원기록부이다. 그런데, 각 병원마다 기록양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정신과의사, 사회사업가,

심리학자, 그리고 간호원 등 그 기록자가 다양함으로써 자료의 양과 상세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 이 연구 분석방법의 커다란 전제가 연구 대상자의 목소리를 최대로 반영한다는 것인데, 과연 병원기록부에서 추출할 수 있는 환자들의 생활사가 그들의 현실을 어느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그 기록은 환자와 기록자와의 대화의 기록인데, 인터뷰과정에는 기록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선입견이 게재되었을 것이며 이에 의하여 환자들의 이야기가 유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짐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자와 치료자간의 대화패턴이나 치료자들의 가치체계가 환자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에 미치는 영향등은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셋째, 이 연구는 우울증을 유발한 여성만을 상대로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여성성과의 관련성을 밝혀보았는데, 병원밖의, 즉, 정신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여성들의 삶을 그들의 가정내에서 행하는 역할과 관련시켜 연구해 본다면 여성 정신건강에 관련하고 있는 또 다른 개인적, 환경적인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